



# 세계연합신문



▲전남 장흥군 화진면 한재공원을 타고 넘는 봄바람에 수줍은 모습의 할미꽃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특량만을 한눈에 담고 있는 장흥군 한재공원은 10ha 면적의 국내 최대 규모 할미꽃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 ‘코인노래방’... ‘배짱몰래영업’에 ‘간판같이’ 꼼수도

### 집합금지 명령에 일부 '성업', 일반노래방 전환 시도 홍대 주점 인적 '뚝', 클럽도 문 닫아 한산한 '불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22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변화가에서는 한 코인노래방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이곳은 홍대 앞 거리에서도 클럽과 술집 등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서 중심가로 꼽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취재 결과 1개 층에 방 10여 개씩 총 2개 층을 사용하는 해당 코인노래방에서는 4~5개 가량의 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방마다 달린 미러볼 불빛은 바깥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방문객들의 밀착 접촉은 불가피해 보였다. 정문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노래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정쯤까지 외부 간판도 켜놓고 영업을 했다. 해당 코인노래방에는 관리인조차 없었다.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명령 시가지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시는 영업을 지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인노래방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 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아서다. 또 최근 청소년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과 2차 등교개학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꼼수'를 쓰면서 영업 재개를 시도

하는 곳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노래방' 간판을 걸고서 대놓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간판만 '일반노래방'으로 바꿔 다는 편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홍대와 신촌, 압구정 등에 지점을 내고 기업화돼 운영 중인 한 노래방 지점 직원들은 노래방 간판의 '코인' 글씨 위에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을 의미하는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노래방 설치 운영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상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580여곳의 일반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바 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 코로나19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발 추가감염 발생"

### 경북서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60대 여성 대구 거주 손자에 감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해외유입발 사례는 8명, 지역발생은 17명이다. 삼성서울병원 관련해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이태원 클럽발로 경북에서 4차 감염사례가 나왔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총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전날보다 25명 증가한 1만1190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치명률은 2.38%다.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일부터 5월24일까지 '9→6→13→8→3→2→4→12→18→34→35→27→26→29→27→19→13→15→13→32→12→20→23→25명'으로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했다.

경북서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에서 60대 여성은 대구 거주 손자에게 감염됐다. 초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A씨이고 이후 이 방문자의 서울 친구 B씨가 대구를 방문한 친구 C씨에게 감염시켰으며, C씨의 대구 친구인 D씨가 손자 직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치명률은 2.38%다.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일부터 5월24일까지 '9→6→13→8→3→2→4→12→18→34→35→27→26→29→27→19→13→15→13→32→12→20→23→25명'으로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 수는 19명으로 총 완치자 수는 1만213명, 이에 따른 완치율은 91.3%다.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는 711명으로 이 수치가 '0'이 돼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종료된다. 당초 방역당국이 밝힌 안정적 의료체계 가동을 위한 1000명 이하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25명 중 지역내 발생 사례는 17명으로 경북 6명, 경기 5명, 서울 4명, 인천 2명이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관련 추가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29세 남성(경기도 759번 확진자)으로, 지난 22일 확

진판정을 받은 어머니(56·여)로부터 감염됐다.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30·여) 일행이 다녀간 강남역 인근 술집 '악바리' 직원이다. 따라서 이 29세 남성은 3차 이상 감염자가 된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경북에선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에서 60대 여성은 대구 거주 손자에게 감염됐다. 초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A씨이고 이후 이 방문자의 서울 친구 B씨가 대구를 방문한 친구 C씨에게 감염시켰으며, C씨의 대구 친구인 D씨가 손자 직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치명률은 2.38%다.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일부터 5월24일까지 '9→6→13→8→3→2→4→12→18→34→35→27→26→29→27→19→13→15→13→32→12→20→23→25명'으로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누적 확진자 1만1165명의 지역은 대구 6873명, 경북 1376명, 서울 768명, 경기 760명, 충남 145명, 부산 144명, 인천 143명, 경남 123명, 충북 59명, 강원 56명, 울산 50명, 세종 47명, 대전 45명, 광주 30명, 전북 21명, 전남 18명, 제주 14명 순이다. 이외 검역과정 누적 확진자는 51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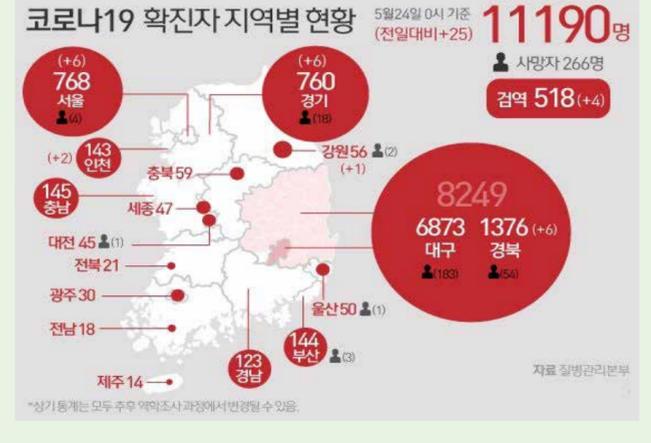
## 내년엔 택배·대리기사...그 다음 프리랜서·자영업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엔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그 이후엔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이 짙은 계층으로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제활동 확인 시스템', 즉 국내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정보 수

집·과약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구상을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향하는 가장 기초적인 청사진이 된다. 우선 로드맵은 직종별 고용보험 도입시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쟁점은 대상확대의 속도뿐만이 아

니다. 로드맵은 대상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 책정방식과 징수체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내년 9개직종 고용보험'...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앞서 정부는 근로자 성격이 강해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9개 직종(약 77만명)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9개 직종 모든 취업자를 '유리지갑'처럼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도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와 사업자 성격이 뒤섞인 특고 중에서도 임금근로자 쪽에 더욱 치우친 직종이다. 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가 뚜렷하고, 대다수 여력이 아닌 1개 업체와 얽혀 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전속성이 높다고 한다. 박덕환 기자 sunmoon500@naver.com



청년 꿈 이룰 수 있는 행복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김천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중  
전국 최저가 3.3㎡당 44만원

김천시

# 과거사법·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찾아내 규명할 것”

##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기본법’ 통과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피해수집 방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장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함으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TF/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해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이재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를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장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를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수원/김성근 기자

## 가족이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더 단단해진 조국사랑



6군단은 최근 부부의 날을 맞아 군단에서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부군인을 대상으로 격려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부부 모두가 군단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쉽지 않은 부부 군인 생활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의 날’은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5월 2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돌(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는 군단장 주관으로 부부군인 5쌍이 참여한 가운데 군단 영내에서 부부 포토 타임과 간담회, 기념품 증정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반일 휴가를 부여해 부부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보병, 통신, 화생방 등 다양한 병과를 가진 부부군인 5쌍은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28사단 화력지원반 소속 김민규 소령(진)과 군단 작전처에서 근무하는 박선희 대위 커플은 ‘11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 12사단 화생방지원대 소대장이었던 아내는 훈련 목적으로 3포병여단 포병대대에서 보호의를 받으며, 작전장교인 현재의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근무하던 부대의 상급부대인 포병여단에 아내가 화생방장교로 근무하게 되면서, 좌중우돌 선후배(실제 7개월 선배) 관계로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이후 ‘13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다. 현재는 슬하에 딸 3명과 함께 다복한 다둥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군단 지휘통신 참모처 소속인 유성길 중사와 군단 정보통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경 상사 커플은 ‘07년도에 1사단에서 통신병과 부사관 선·후배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남편 유성길 중사는 당시 장기

복무에 비선되어 전역하면서 군을 잠시 떠나게 되었으나, 둘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고, 다시 통신병과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하여 군단 정보통신단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재입대 이후 둘은 장거리 연애(파주-포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12년도에 결혼하게 되었고, 이후 아내 박혜경 상사가 군단 정보통신단으로 전임을 오게 되어 현재 7살과 5살 아들 둘과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및 유치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이들 부부 군인들도 ‘육아시간제’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다.

이 외에도 수 년여 만남을 비밀로 이어간 끝에 사단 참모장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 장교-부사관 커플과 아내가 2년 선배인 연상연하 커플, 같은 부대에서 지휘관과 소속 부대원으로 첫 만남을 갖은 이후 타부대로 각자 전출 후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 등 사연이 다양하다.

세 자녀를 키우며 남들 보다 세 배 더 바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박선희 대위(37세)는 “쉽지는 않지만, 부부 군인으로 다둥이 엄마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유성길 중사(37세)는 “재입대 후 부부 군인으로 생활하는 지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군부대원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부부의 날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군단에는 이날 모인 5쌍의 부부군인 이외에도 많은 부부 군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과 가정의 조화 속에서 혼자가 아니어서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천/김승근 기자

##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34억원 증액 편성

### 민생안정, 도로개선, 교육환경사업중점뒤 계속사업비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액 대비 4534억원이 증액된 3조72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 계속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103억원, 내부거래 1900억원, 세출 구조조정 절감액 307억원 등의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민생안정, 도로개선, 교육환경 사업에 중점을 뒀다.

주요 기능별 편성내용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993억원, 체육 분야 56억원, 환경 분야 19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80억원, 보건 분야

11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30억원, 도로·교통 분야 513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128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을 편성했다.

성남중앙초교 등 6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18억원, 대장초·중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북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죽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 문화·의료시설 건립 70억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9억원을 배정

했다.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2차에 걸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940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생계지원 11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 아동 양육 긴급 돌봄비 204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125억원 등 모두 2003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성남/이광희 기자

## 문경, 저출산 대응민관학업무협약



경북 문경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공기관, 교육·금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사 등 15개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학이 모두 협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 부산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만나 부산 민심 전달해

###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 절대불가” 송영길 의원 만나 관문공항 협조 요청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부산시가 동남권 관문공항의 당위성과 시민들의 염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과 14일,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차례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송영길 의원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데 이어 부산시가 전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2일 부산시청에서 변성한 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수도권 중진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 5선)을 직접 만

나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필요성과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함으로써, 중앙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이 막바지인 지금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송영길 의원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검증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서 총리실의 결정만 남았다”며, “수도권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며, 이번 강연회는 전국적 여론확산의 본격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환 기자

##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환경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환경분야 정책 자문활동 수행해 5개 분과 76명의 위원으로 구성

경북 영주시는 최근 정책자문위원회 힐링·복지분과에 환경분야 전문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5개 분과 7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명의 환경분야 전문 위원을 힐링·복지분과에 편입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노상균(동양대학교 교수), 심원복(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영주 구루매니저), 송시훈(한국유약환경학회 회장), 김수마(허리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생) 위원은 앞으로 영주시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폭넓은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민선 7기 시민과 소통·

영주/정승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는 최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lean Up HRDK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소속직원과 사업고객, 유관기관 등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청렴문화 조성, 청렴활동 실행, 청렴문화 확산 단계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청렴문화 생태조성을 위해 사내 청렴송 방송, 청사 청렴게단 조성, 청렴식물 가꾸기, 청렴 알림록 전송을 추진한다.

이외, 청렴활동 실행 단계에서는

청렴의 날 운영, 부패 위험사업 모니터링 강화, 청렴현장 탐방, 지사장과 대화회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사 홈페이지 내 청렴콘텐츠 게시, 홍보 기념품 제작 시 청렴문구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정 지사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청렴 캠페인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고양시, LH 개발이익 상생 방안 적극 나서

###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주재 현안회의 개최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이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시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부시장 소관 부서 여러 현안사업의 추진현황보고와 함께,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향후 고양시와 LH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현안회의를 주재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LH는 그간 고양시에서 삼송·원흥·지축·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최근 덕은 도시개발사업 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기반·자족시설 확충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향후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 개발 추진 시에는 반드시 LH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시와 LH간 업무협력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오늘(20일)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LH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LH의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종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장과 제1·2부시장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장과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LH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안성시의회,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

### 허가 반대 결의문을 평택시장에게 전달. 편서풍으로 안성시에 직접 피해줄 수 있어

경기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최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도일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허가 반대 결의문을 평택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안성시의회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도일동 고형연료(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을 상정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신원주 의장은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평택시 도일동에 건립 예정인

고형연료(SRF)소각장은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와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러 시 경계간 인접지역의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보공유와 사전 의견청취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정장선 평택시장도 환경적인 측면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결의문 전달을 마친 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유기영 기자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사실상 확정...과제도 산적

##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비대위로 압도적 결정"

### 김종인과 임기 문제 등 사전 논의, 김종인도 '수락'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논란됐던 임기 연장은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박사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오전 내내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의 뜻이 모여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원내당 협회위원장과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비대위) 방향이 잡힌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당선자 워크숍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워크숍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찬성과 반대파가 나뉘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 반대 의견은 '자강'이었다.

김종인 비대위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해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수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했다"며 "김 내정자의 임기 문제 등은 사전에 논의했고 본인도 수락했다고 주 권한대행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3월31일까지 임기 예기도 있었지만 재·보궐과 일주일 밖에 차이가 안나 의미가 없다"며 "표 차이는 찬반 나뉘어서 쌓이는데 높이를 보면 (차이를) 알겠더라"고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절망적이었다가 바뀌었다고 보고했다"며 "전국위 일정은 통합 등을 준비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워크숍을 마치는 대로 김 내정자를 찾아가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전환 결정이 내려진 28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4·15 총선 참패 후 폭풍에 빠진 통합당이 김 내정자를 중심으로 전국선거 4연패라는 사상 초유 위기를 맞은 보수진영의 체질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21대 국회 83석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을 이끌어야한다.

당장 김 내정자 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당 쇄신 작업에 나선다고 해도 당이 단일 대오로 뭉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들어선 새누리당(현 통합당) 박근혜 비대위는 25% 현역 물갈이 등을 추진하며 최근 10년 보수진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 받는다.

이는 친박계의 수장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19대 총선 공천권까지 쥐었기 때문에 비대위를 통한 쇄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앞서 김희옥(2016년 총선 패배)·인명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김병준(2018년 지방선거 패배) 비대위 등 외부수혈을 한 경우 비대위원장의 좁은 당내 입지와 쇄신에 따른 기득권 상실 등 현역 의원들이 반발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 역시 앞서 실패한 비대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동명 기자

다만 총선 참패로 인해 계파가 사실상 와해 되면서 기존 친박계 등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의 입지 축소와 초선들의 대거 진입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문제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차르(황제)'로 불릴 만큼 강한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개혁성향으로 15명 이내의 비대위원을 구성,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 대선 주자들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특히 '830세대'(1980년대생·30대·2000년대 학번)가 통합당의 주요 혁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김용 당선인(70년생)을 비롯해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비대위 전면엔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추동명 기자

## '규제'에 묶인 서울 집값 8주째 ↓ 남양주 0.1% 상승



### 추격매수 없는 강남권 '관망세' 짙어 금리인하 잦은 유동성 확대 vs 정부규제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약세(-0.01%)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고 5주 연속 떨어졌던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과세 기준점인 6월을 코앞에 두고 방향성 탐색을 위한 줄다리기가 국면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해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제한된 분위기다.

### ◇재건축 하락세 소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산 포함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다. 재건축이 0.06% 떨어져 전주(-0.05%)보다 낙폭이 조금 커졌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밖에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저평가 지역에서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0.0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강남(-0.06%) 광진(-0.03%) 강동(-0.01%) 순으로 내렸다. 반면 구로(0.08%) 중구(0.07%) 중랑(0.04%) 서대문(0.04%)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들은 올랐다. 이번 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0.00%)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시는 △일산(0.03%) △평촌(0.03%) △산본(0.02%) △김포한강(0.01%) △관교(0.01%)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0.01%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규제 영향으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개발·교통호재가 있는 저평가 지역들은 오

름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남양주(0.10%) △안산(0.10%) △광명(0.08%) △양주(0.08%) △안양(0.07%) △군포(0.06%) △의정부(0.06%) △화성(0.06%) 순으로 올랐다. 과주와 과천은 0.05% 떨어졌다.

### ◇한은 금리인하 유동성 확대 vs 정부 규제기조 강화...집값 변수 될 듯

전세 시장은 서울이 지난 주(0.03%)보다 상승폭이 줄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은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2%씩 올랐다.

서울은 △도봉(0.09%) △용산(0.07%) △성북(0.06%) △중구(0.06%) △중랑(0.04%) △구로(0.03%) 순으로 올랐다. 우선순위 청약의 위안 지역 내 거주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서울로 전세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분위기다. 용산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거주 목적의 청약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세값이 강세다. 반면 송파는 0.06%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4%) △분당(0.03%) △관교(0.03%) △산본(0.02%) △광교(0.02%) △중동(0.01%)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성남(0.10%) △왕(0.09%) △수원(0.06%) △안산(0.06%) △용인(0.06%) △군포(0.05%) 순으로 올랐다. 지역 내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난 과천은 0.47% 떨어졌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부 급매물이 래던 이후 하락폭은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품선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두 기자

## 이해찬, 윤미향 의혹에 '합구령'... '사실 확인 우선' 기조 유지

### 최고위서 "개별 의견 분출 말라 검찰 수사로 회계 검증 불가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 "각자 개별적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는 '합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표께서 정당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큰 근간을 잡아줘야 하는데, 정당이 자주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일회성 일비 하듯 하나 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

연) 이사장 출신으로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기부금 부정 운용', '안성 쉼터 고가매입', '경매 아파트 자금 출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연일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우선'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강훈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우정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보고 자료를 이 대표님이 보셨다"며 "관련해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관련 팩

트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행안부가 (시민사회단체의) 1차적 관리감독 기관"이라며 "공식 기관에서 1차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정의연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외부 감사 일부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허 대변인은 "일부 자료를 검찰이 가져간 상태"라며 "원래 계획했던 회계사협회를 통한 외부 전문가 검증은 받기로 한 내용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추동명 기자

## 민주당, 8월29일 전당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4차 정기 전국 전당대회 날짜를 이같이 의결했다. 당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진행한 유튜브 특별 방송 '노무현의 꿈이 이뤄지는 시대' 출연해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라 전당원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온라인 전당대회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준위 설치 및 구성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동명 기자

**365 전문재활센터**

**호텔 수준의 프리미엄 병실**

**인공신장센터**

**야외재활치료**

**통증치료, 척추 관절수술후 재활치료, 뇌졸중 초기재활 치료, 인공신장센터**

**명품 재할요양병원**

검증된 최신 의료장비,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적 진료!  
가족처럼 모시는 친절한 명품요양병원입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의료진이 친절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명품요양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품병원 장례문화원**    경북 영주시 기흥2동 1119번지    054) 639-1800

# 경남도, 중앙아시아 5개국, 함양산삼엑스포 찾는다



## 한·중앙아친선협, 입장권 구매 약정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 될 수 있을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한·중앙아친선협회(회장 이옥련)와 예매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국인 관람객의 엑스포 입장권 2,000매 구매를 약정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약정식에는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 이옥련 한·중앙아친선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앙아친선협회 이옥련 회장은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어 함양산삼엑스포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구매 약정식을 계기로 더 많은 중앙아시아 5개국 국민과 한국 거주 교민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보고 싶었다, 애들아!' 장흥고, 고3 첫 등교 개학

전 교직원 따뜻하 맞이하는 행사 실시  
중앙 현관에서 교직원들이 발열 체크

전남 장흥고는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을 준비하며 전 교직원이 학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침 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고3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교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5월 20일 아침 교문 앞에서는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 교장, 학생부 선생님들이 반가운 미소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중앙 현관에서는 교감, 교직원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초콜릿 등 간식거리를 나누어주며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등교하던 3학년 김○○ 학생은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친구들을 만나는 생각에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심히



히 학교생활을 하여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고 김광수 교장은 “학생들의 등굣길에 아침 맞이 자리를 자주 하는데, 오늘은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여겨진다.

오늘 아침 맞이 행사는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고생했을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소소한 간식거리와 함께 선생님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교직원들의 의견으로 마련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좋은 취지의 아침 맞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중현 기자

## 화순군,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자연속애순미 화순군 쌀브랜드 가치 높여  
시상식 도청 7월 정례회시 진행 예정



전남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화순의 '자연속애순미'가 선정(장려상)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속애순미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전남도청 7월 정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은 밥맛, 혼입률, 단일품종 증가율, 친환경 쌀 재배, 기계 품질, 외관 품위에 대해 전문가별 평가와 현장평가 등 1차, 2차,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도곡농협라이스센터의 자연속애순미는 호농 품종으로 141농가가 484ha 규모로 계약 재배한다. 856t을 매입하고 브랜드 쌀 연간 매출액은 20억 원이다.

포장 단위는 10kg으로 가마당 3만4000원이며 택배비는 별도다. 구매 문의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061-372-4010)에 하면 된다.

도곡농협라이스센터는 4200t의 저장 능력, 가공 능력 1만2000t, 건조 능력 7357t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과 GAP(농산물우수관리) 지정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도곡농협라이스센터 담당자는 “재배면적 확보에 연합RPC보다 개별RPC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서 “재배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히, 서울시 공공 급식 납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윤상 기자

## 화성시, 대대적으로 택시 방역 소독 강화

관내 법인택시업체 3개소 현장점검  
개인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방역 실시



경기 화성시가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다.

시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영업을 이뤄지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에 돌입했다.

우선 최근 관내 택시업체인 동성운수, 금성공사, 운수협동조합 3개소에 자체 소독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매일 운행 교대 때마다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 시작 전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 뒤 관찰 보건소로 연락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21일 화성시개인택시조합(조합장 장덕희)과 함께 병점역, 동탄역, 주요 종점소 등 택시 승강장을 중심으로 관내 개인택시 소독을 실시했다.

화성/김용범 기자

## 광명시 전체 학교 열화상카메라 장착

기준 미달로 미지급 학교 12곳 지원  
비접촉식 체온계 수시 활용해 달라 당부

경기 광명시는 기준 학생 수가 모자라 체열탐지 열화상카메라를 지급받지 못한 초·중·고교 12곳에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광명지역 전체 초·중·고교 48곳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모두 갖추게 됐다.

광명시가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는 학교는 광명남초와 연서초, 도덕초 등 초등학교 9곳과 안서중, 빛가온중, 경기항공고 등 중·고교 3곳이다.

이 학교들은 광명교육지원청이 정한 학생 수 기준 478명에 못 미쳐 교육청으로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지급받지 못한 곳이다.

열화상카메라는 한 대당 가격이 700만 원 수준으로, 광명시는 전체 예산 8400만 원을 확보하는 대로 12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발열 체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달라고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광명시는 이밖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당국과 유치원, 학원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마스크만 6만 개가 넘는다.

또 4월부터는 긴급 돌봄학교 학습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도 공동 구매했다.

광명시는 등교 수업에 앞서 18일에는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학교 안전 개학 TF'도 꾸렸다.

TF는 정기 회의를 통해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등·하교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교사들이 힘들더라도 비접촉식 체온계로 학생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자”고 말했다.

광명/정채두 기자

**HYOUN 이현정보기술(주)** Total IT Service & Solution Provider

사업분야: 가상화, SI사업, 컨설팅, 시스템 수출입, 서버, 스토리지 도소매

**이현정보기술(주)는 E-BUSINESS를 위한 SYSTEM INTEGRATION을 전문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 현황

대전시 서구 가수원중로1 이현빌딩  
042-936-9666

# 귀농 1번지 경북, 경상북도로 오이소~



인 및 담당 공무원 80여명이 온·오프라인 홍보관 운영을 통해 귀농 희망자들에게 귀농 및 청년창업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귀농 최적지 경북농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귀농 희망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코너를 운영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2018년 경북 귀농가구는 2,176가구로 전국 11,962가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금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귀농가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의 매력은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가장 많으며 단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등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밀그림



경북 영주시는 최근 시청 강당에서 '소백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육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소규모, 힐링, 정경, 스마트' 등을 키워드로 나타나는 관광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특히 보고회에 참석자들은 부석사, 소수서원 등 관광 위주의 관광지를 보완할 체험형·체류형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영주시는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산림레포츠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장육현 영주시장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이후 증가할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김포시, 위기상황 대응 위한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한근무환경 조성 시민 안전 위해  
본청 민원실 경찰서 연계 비상벨 설치



경기 김포시는 최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본청 민원실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112상황실로 연결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민원실 근무 직원을 보호하고 방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김포경찰서와 협업체 민원실과 112상황실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설치한 경찰 연계 비상벨은 신속한 상황 알람으로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돼 직원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

고의 확대 방지와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실 직원은 물론 방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 비상벨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 도및13개시군,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및 매력 발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경상북도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경북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청년층과

인생 2막을 꿈꾸는 장년층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청년 창업관, 채용 컨설팅, 지역별 귀농 지원정책 홍보관, 특산물 판매관 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진행됐다.

경북도와 13개 시군에서는 귀농



## 경주시 징수과, 황성공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 맞이해서  
환경정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경북 경주시 징수과 자원봉사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 속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황성공원 충혼탑 주변 일대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등 환경정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징수과 자원봉사단은 경주시 살림살이의 기초재원이 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참배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충혼탑을 보여주기 위해 탑 주변과 인근 산책로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충혼탑은 평소 어르신들을 비롯해 산책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복지정책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지만, 주변의 숲 속에는 잡풀이 많이 자라고 각종 썩은 나뭇가지가 나뒹굴고

경주/한반식 기자

## 경주시,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2년 연속 선정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선정  
공공임대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입주

경북 경주시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지자체는 경주시를 포함 전국 6개 지자체로 지난 2월 규모, 재원방안, 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4년간 국비 132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복지시설이 함께 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건립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되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미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노노케어 등을 통한 2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시는 부지제공(50년간 무상임대), 복지시설의 기자재 구입, 운영을 담당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복지주택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민선7기 거점별 실버텔 건립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노년층을 이제는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사업을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안산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대상자 자수기간 운영

보호관찰 위반 지명 수배된 대상자  
자수기간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치유 범정부 노력 동참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에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관찰을 받다가 집에서 가출하여 보호관찰을 회피하며 지명수배 중이던 K군이 실제로 자수하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규정대로 조사 후 석방조치를 하였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산/김대성 기자

## 문경시, 횡단보도서 보행 3원칙 지켜주세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스티커를 제작해 모전초등학교, 점촌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보도 경계석)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어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 사업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가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보행원칙을 홍보하고 실천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회장은 "이번 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 사업과 같이 선진교통문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문경시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넌다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헌신은 존중 책임은 분명히”

## 후원금 부적정 사용 및 법률 미준수 사례 발견

### 법인운영·후원금·법인회계, 증축공사 과정 문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

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관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관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김성근 기자

## 하남시의회이영아의원 “공약실천” 최우수의원 선정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수상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공약실천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표창을 받았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했으며,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행사 없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이영아 의원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쳐왔으며, 공동체의 안전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마을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시청사 청소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매서운 비판으로 시 행정에 긴장을 불러넣는 한편, 제도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약 실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젊은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치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땀 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광희 기자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해

### 평화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추진 추경예산안이파주시의회입안·회본회의통과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파주시는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시정비전 아래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평화협력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5년간 연차별 추진방안을 모색해 남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비전을



구축하고 파주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파주형 평화도시조성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북미, 남북관계의 흐름과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평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키울 것”이라며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평화도시 네트

워크 및 민·관 협력 등 관련 세부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19일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GTX C노선 팽택 연장 급물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의 팽택까지 연장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팽택·화성·오산 3개 시가 다시 모였다.

팽택시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정장선 팽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오산), 권철승(화성병), 홍기원(팽택갑) 당선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산업단지 등 팽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교통 수요에 따라 GTX-C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업 변경은 어렵다”면서 “적극적인 만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장선 팽택시장은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GTX-C의 팽택 연장으로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팽택/유기영 기자

## 광명시, 35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현 자원회수시설(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인근 부지에 3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건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 되어 소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을 소화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앞두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 4월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 결과 현재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광명시는 21일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자원회수시설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 주요 과업 수행 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폐열활용방안 및 사업추진 방식 등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본 용역을 통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환경부와 사전 예산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정재두 기자

## 다문화포용도시 안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포용도시 1번지 차별 없는 복지와 선도 정책 만들겠다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글로벌 도시’ 안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포용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안산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다문화포용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를 발굴,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는 전 국민

대상의 브랜드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마케팅 활동, 선호도 등 4개 부문 평가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문화포용 대표도시에 선정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함께 극복하고 있다”며 “안산시민과 함께 다문화를 포용하고 상호 문화를 존중해 나가는 더 큰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3월말 현재 105개국 8만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이자 유령평의회 인정한 상호화도도시로, 이번 브랜드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 할 전망이다.

안산/김대성 기자

##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서 대도시부문 2위

### 용인시, 인구 50만이상 도시 대상 재정역량·교육·보건 분야 우수 평가

용인시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부문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이 평가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자치구, 군 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보건복지·지역경제·문화관광·안전·교육 등 5개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등을 분석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SK하이닉스 유치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대한

결과 인구 증가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역량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 미발행, 행사성 사업 축소 등 재정 건성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평가에 도움이 됐다.

또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특화 사업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근기 용인시장은 “108만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SOC 확충,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용인시는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이 사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환경업치과

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을 연말 준공한다

### 일동·고잔동에 모두 19가구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 제시할 것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이 될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이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고잔동에 모두 19가구 규모로 올 연말에 들어선다.

케어안심주택은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빌트인 가전으로 채워졌으며,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 육상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에 따르면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4층 규모의 케어안심주택을 올 연말 준공

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고잔동에 지어지는 케어안심주택에는 9가구가, 일동에는 10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모든 건물에는 건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입주 대상 어르신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선정할 방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지사·안산시 한의사회와 안산시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성 기자

## 여주2020년 전국지자체평가인구50만미만부문1위

여주시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59개시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 결과로 92.99점을 총점을 받았으며 2018년 38위, 2019년 19위로 10위 권 밖에서 단숨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추진한 평가에서 교육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이 포함된 행정서비스 분야 59.375%, 재정역량분야 35.6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진 분야 5%

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시장은 “인구 12만으로 도농복합형 강소도시인 여주시는 시민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며 ‘사람중심 행복여주’ 비전 아래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해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이 전까지 최고의 지자체 평가를 받게 됐다고 기뻐했다며 ‘여주시민은 행복하다’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당연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주/유기영 기자

## 도시개발사업 반려 지역에 고층 아파트 안돼요

###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자 주의 강조 용도변경 불가지역 투자로 피해 발생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대한 투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 고시 제2018-140호)돼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도 연결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점」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2019년 10월 22일(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다.

윤철현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사, 주민(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포/차역문 기자

# 화성시, '레벨4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협약 체결

### 국토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 펼칠 것"

화성시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율주행'기술의 메카로 도약한다.

시는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실증대상지로 화성시를 최종 선정하는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 자율자동차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26개소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1년 말까지 국비 273억원, 민간자본 91억원, 총 364억원이 투입되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와 새솔동 수도중앙로 일원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차량 제작,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실증하려는 기술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4'단계로써 V2X 통신(차량과 사물간 통신)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을 연동해 안전성이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 실제 도로를 통한 기술검증으로 해당 분야의 획기적인 성장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연구, 실험, 실증, 생산 등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성시와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무상교통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을 접목한 융복합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자율주행기술과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주행 학습 알고리즘 개발,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입, 공유 교통서비스 창출까지 친환경 첨단 교통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화성/김용범 기자

## 연천군 재난선불카드, 10억 초과매장 사용 가능

###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선불카드 지급 시행업소제한10억원초과매장사용가능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18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조건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천군에서는 해당 매장



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알림 홍보물'을 관내 매장에 배포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라며, 5월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김승근 기자

## 고양시, '군 낙석 철거'로 내유동·지영동 주민 숙원 해결

### 군장군과지역적협의를60사단합의2차체결 해빈치결거원료예정'군작전에는영향없어'

고양시는 덕양구 내유동 및 일산동구 지영동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60사단 관할 군사시설인 낙석 2개소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군 당국과 군사시설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난 14일 60사단과 합의 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시는 지난 해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윤용석 의원)'이 통과된 이후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민·관·군협의체 관련 TF팀을 구성, 낙석 철거를 우선 과제로 선정할 바 있다.

낙석은 전시에 적군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도로 상부에 설치된 군사시설물로 특히 대전차 방어에 중요역할을 하지만,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차량통행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수십 년 간 지속됐다.

군사시설물(낙석) 철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군과 협의해 금년 하반기 안에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은 군과 협의를 통해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군 작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군 낙석 철거를 계기로 고양시가 낡은 군사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평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군사시설 철거에 적극 협조해준 군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재준 시장 민선7기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장성급의 군관협력담당관을 채용해 고양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총127.37㎢ 중 60사단 관할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 및 행정위탁(18.6㎢), 2019년에는 30사단 관할구역 해제(4.3㎢) 및 행정위탁(4.5㎢)의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신규농업인 교육수료자 70%, "귀농·귀촌 생활 만족"

### 귀농·귀촌여부, 만족도 등 조사 귀농·귀촌 만족도 : 만족 70%,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귀농귀촌 한 신규농업인의 7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작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17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 ▲적착지역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수료자 중 37명(21.3%)가 귀농·귀촌을 했으며, 이 중 23명(62.2%)은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명, 안성 4명, 이천·평택 3명, 남양주·여주 2명, 김포·양평·용인 각 1명 순이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4명(37.8%)으로, 이 중 10명은 연고지 또는 지인의 거주로 도의 지역을 선택했다.

귀농·귀촌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만족 70%, 보통 22%, 불만족

8%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어려운 점으로는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 59%, 경제적 이유 27%, 지역주민의 갈등 11%,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46%는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평균적으로는 귀농·귀촌에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했을 때 주 재배작목은 원예작물 72.4%, 식량작물 20.6%, 특용작물 3%, 축산 3%, 기타 1% 순이었다. 원예작물 중에는 채소 47.6%, 과수 38.1%, 화훼 9.5%로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농기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도울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심화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철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과 영농경험을 제공한다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승근 기자

##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일부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사업수행능력 입지수요 검증 완료

경기도-고양시-경기도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용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용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

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감감, 재산세 5년간 35% 감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일대 85만㎡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意向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意向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www.gumici.or.kr](http://www.gumici.or.kr)

# 구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민주의정, 화합의정,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 의정으로  
희망찬 구미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이제 다시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뜻을 올린다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다짐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최근 경북도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를 비롯한 지원기관, 당사자조직,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구경북 경제적·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대

구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올해 경북에서 개최예정인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업종별 장단기 사업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교류 활성화,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사

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대회를 비롯하여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민-민, 민-관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동개발,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수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했다.

지난 해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사업 44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

회적경제분야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대구경북은 오랜기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뿌리이며, 지난 2018년 8월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가치와 이념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천시립역사박물관건립 중간보고회 개최했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기본개념구상 건축 기본계획 등 설명

영천시는 올해 하반기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위한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종운 영천시의회회장을 비롯한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용역을 수행 중인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우성호)에서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기본개념구상과 건축 기본계획 등을 설명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영천시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갖게 된 의미와 의의에 주목하여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을 '길'로 제시했으며, '길'이라는 기본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영천지역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법률·정책·기술적 적정성으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팀에서 영천시에 시민 참여형 박물관건립과 시립박물관건립 TF팀 신설을 제안



했다.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적 특색으로 추진 중인 영천시립역사박물관은 화동동 934번지 일원에 부지 1만881㎡, 건축면적 3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체부의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80억 원(40%)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의 위상 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박물관이 시민의 곁에 함께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 ‘청정도시영주안심하고방문하세요



영주시에서는 최근 영주역, 터미널 및 주요 관광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린&안심 영주」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청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클린&안심 영주」 캠페인은 영주역을 비롯한 관내 주요 시설과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등의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활동과 함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홍보전단 배부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청정 영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MOU체결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코로나 진정 국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문경시.범시민 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힘찬 첫걸음  
추진상황 점검민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문경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연합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문경시 BC(Beyond Corona-19) 범시민 경제살리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문경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이후 시정방향에 대해 코로나19방역팀(보건소장), 민생안정팀(행정복지국장), 경제활성화팀(경제산업국장)이 팀별로 보고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일자 보고회에서는 시의원, 기관단체장,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문경시 BC 경제살리기 범시민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의료분야에 전경홍 동산가정의학과의원 원장과 민생 및 경제분야에 지용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을 문경시 코로나 극복 경제살리기 범시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일자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3일차에는 상인회, 농공단지협의회, 전문건설(토목), 건축사회 위원들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코로나 대응 현황 및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현재 문경시의 확진자는 경북 23개 시·군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

국에서 가장 안전한 문경, 청정문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3월부터 드라이브스루 경제살리기 추진본부를 구성, 택시타기, 드라이브스루 도시락, 농·특산물 소비촉진운동 등을 실시, 4월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전 행정에도입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복지시설에는 읍압기, 의류소독기, 근무복 등을 지원했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도 감면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 지역고용대응 단기일자리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을 운영하고, 지역내 감염병 예방시설이 필요한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숙박,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학원, 당구장 등에 감염병 예방시설지원 뉴딜사업도 실시해 사업장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외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최근 개장한 국내 최장 단산관광모노레일, 문경생태 미로공원 입장료의 일부분을 문경사랑상품권(농특산물 교환권)으로 지급해 지역의 농·특산물 매출도 배가 되는 등 2차 소비를 이끌고 있으며, 향후 주요 관광지 및 식당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고회 후에는 단산 관광모노레일 견학을 실시했으며, 모노레일은 개장 후 현재까지 6,200여 명이 방문해 문경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경/장성우 기자

##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확산 화상 회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해

문경시 설치, 문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익)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부모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개별면담 기법교육'을 지난 19일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의 일환으로 진행된 화상 강의는 일방향이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며 이뤄

진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과 차이점을 갖는다.

온라인 화상강의를 들은 보육교사는 “첫 화상강의라 여색했지만 화상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줄어들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현익 센터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내 다양한 대책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교육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으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 영주시, '500년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조성사업 설명회

영주시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계획 중인 '500년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에서 조성하게 되는 이번 천년을 이어갈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500년 가삼의 재배지이자 고려인삼 시배지인 영주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릴 수 있는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조성 사업은 기본 인프라와 시설 부족으로 인삼의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봉현면 오현리 일원에 부지매입비 포함 총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대표 축제인 풍기인삼축제의 축제장과 부대행사장 및 지역 최초 국제행사인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며, 평상시에는 지역민들의 힐터와 다양한 놀이체험휴양 등을 겸할 수 있는 문화팝업 공간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이다.

장성욱 엑스포운영단장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500년 가삼재배지인 우리지역의 인삼랜드마크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정승초 기자

##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 청룡공원이 달라진다

청룡공원 일대에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  
여름철청룡폭포·야생화의이름다운만남

경주시 산내면은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아름다운 산내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창천 청룡공원 일대에 야생화 꽃단지 1,000㎡를 조성했다.

동창천 일원은 인공폭포인 청룡폭포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와 캠핑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했다.

공원주변에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미추백을 중심으로 할미꽃, 돌난풍, 금낭화, 비비추, 꽃잔디, 매발톱, 사계장미, 사계패랭이 등 다양한 야생화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름과 예쁜 꽃들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내만의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야생화를 심었던



산내면 버스정류장 등 5곳에는 산내면 주민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에서 이른 봄부터 잡초를 제거하는 등 꽃밭 가꾸기 작업에 참여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이상곤 산내면장은 “아름다운 산내면 만들기 동참해준 산내면 주민들과 자생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안전한 '클린&안심 도청신도시'만들자!



이철우 지사, 안동시 기관 단체장 참석  
직원들과 도청신도시 방역소독, 청소

경북도는 최근 도청신도시 일대에서 도청 직원들이 안동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활동과 거리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과 대청소는 코로나19로부터 청결하고 깨끗한 경북도 이미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7시 30분부터 이철우 도지사, 안동시장, 지역도의원, 도청신도시시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안동시 기관·단체장들과 250여 명의 도청직원들은 도청신도시의 상가거구를 중심으로 상가건물의 출입문과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공동이용공간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고, 공원, 주차장,

공터 등 도청신도시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

손에 분무기소독제를 들고 방역소독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경복이미지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복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청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청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책상, 케비넷 등 사무실 대청소를 실시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주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공모 2년 연속 선정

고령자 복지주택 통한 주거안정  
'고독사 해소, 199억 원 투입해

경주시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지자체는 경주시를 포함 전국 6개 지자체로 지난 2월 규모, 재원방안, 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서를 제출 받아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국비 132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건립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되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미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노노케어를 통한 2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시는 부지제공(60년간 무상임대), 복지시설의 기자재 구입, 운영을 담당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복지주택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민선7기 거점별 실버텔 건립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노년층을 이제는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사업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김경수 지사 “등교수업 시작, 학교 방역에 최선”

### 간헐적 확진자 발생 불가피, 확산 차단 총력 기울여 ‘경남형 뉴딜사업 발굴’에 대한 간부회의 개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고3 등교 수업 시작과 관련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 현장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의 직전, 이날 초 서울 신촌 소재 클럽을 방문한 경남121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 지사는 “코로나 대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함께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전했다.

현재 도와 시군을 포함해 총 21곳

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전날(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전사서명법」 등 법안 통과 의미와 효과를 언급하며 도민들께 도움 되는 부분은 필요한 시점에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 14일에 이어 개최된 두 번째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실·국·본부는 경남형 뉴딜사업의 방향으로 설정된 ‘디지털·그린·사회적·한반도신경제 뉴딜’ 분야별로 발굴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연계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주제인 ‘경남형 뉴딜’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어제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한국형 뉴딜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셨고, 새판을 짜나가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정해



졌다”며 “정부의 방향과 함께 경남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경남형, 경남판 뉴딜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각 실·국·본부의 보고와 토론 진행 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 중 공동 추진이나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은 바로 정리해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과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발굴한 사업을 토대로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경남형 뉴딜 사업을 확정해 향후 국비확보, 사회적 안전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디지털회의를 계기로 향후 간부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에 스마트기기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종이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업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영호남 7개 시군 뭉쳤다!



### 산삼엑스포조직위-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업무 협약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리산을 연결하고 있는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영호남 7개 시·군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과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이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이들 7개 시·군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비롯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함께 협력해나가고 있다.

오송귀 곡성군 부군수는 “함양은 예로부터 지리산권에 위치한 지자체들 중에서도 산삼으로 유명했다”며, “인근 지역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힘을 보

태줬다”고 말했다.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은 “영·호남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리산 권역의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엑스포의 차별 없는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정부공인 국제행사로서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 nh농협, 엑스포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예매시부터 엑스포 종료시까지) 경남도 내 16개 시군 숙박 및 유류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거제시와 조선소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파트너”

### 고용인정 물량지역배분, 4대보험체납논의 거제시지역경제회생은 여전히조선산업

거제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양대 조선소장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과 보건, 환경 관련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변광용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조선업 발전과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함께 잘 극복해 나가자”고 인사를 전했다.

정진택 삼성중공업 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심화되고 유가마저 하락해 선박 발주가 급감하고 취소·연기되고 있

어 내년 일감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주주회복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소장은 “대우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 물량은 6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HMM호 덕분에 대우와 삼성 모두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장기 불황에 더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양대 조선소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량 하나라도 더 지역 협력사에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물량의 지역 내 배분과 조선현장의 고용 안정, 4대 보험 체납 방지를 위한 원청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을 비롯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와의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갔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는 조선업



이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거제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조선소”며 “거제시와 조선소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파트너로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거제시와 조선소의 매칭사업을 발굴·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거제/김영한 기자.

## 김해시,수질오염사고방제훈련 실시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 불암동 빗물배수펌프장 일원에서 상반기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수질환경과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김해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사고 접수 시부터 상황판단·보고 상황전파, 방제인력 동원,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조치, 훈련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불암동 빗물배수펌프장 상류 하우스 농가에서 난방유 약 100ℓ가 유출된 사고를 가상 설정해 방제보트, 오일펜스, 오일뿔, 흡착물, 유화제 고압 살포기 등의 방제장비를 총 동원, 실제상황과 같이 이뤄졌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은 “현장 중심의 방제훈련으로 초기 대응체계 확립과 방제요령 숙달을 통한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 청신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와 동삼동 해경교차로(동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봉래교차로~동삼혁신도시간 도로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도구의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봉래동 봉래교차로에서 영도구 중앙의 봉래산을 터널(연장 2.78km)로 통과하여 반대측 동삼동 해경교차로(동삼혁신도시) 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3.1km이며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2,079억 원(국비 995억·시비 1,084억)에 달한다.

봉래교차로~동삼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은 지난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 8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같은 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 점검 회의와 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통과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태종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태종대유원지 및 국립해양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래 방문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주민의 출퇴근 등 통행 불편 완화는 물론 관광명소인 태종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김영한 기자

**다함께! 다같이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높이는 한전KPS의 기본 좋은 상생프로그램입니다. 패러데이 스쿨 편

www.kps.co.kr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Perfect & Pride**

★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상생 프로그램

**한전KPS 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 여주시, 전국 지자체 평가 중소도시 부문 '종합 2위'

## 대규모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분야 높이 평가 지난해 9위 → 올해 2위로 종합 순위 경중 뛰어

여주시가「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중 종합 2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5년 이래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여주시는 재정건전성과 행정서비스분야의 지역경제, 보건복지 등 부분별 점수가 상위에 오르며 지난해보다 종합순위가 무려 7단계 상승해, 최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역경제 부문은 2025년까지 약 9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 신증설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여주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시책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39위에서 4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그동안 여주시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산단 입주업체의 기반시설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밖에도 삼동지구 첨단 R&D 혁신산업단지 조성, 세계한산대회 개최, 경도 진입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청년물 육성, 청년인턴제도 확대,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경제기업 100개 발굴 등 여수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행정 전 영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행복공동체 여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자체 평가는 언론·학회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계청, 행정안전부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여수/김상면 기자

# '대숲맑은 담양쌀'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 수상

## 10년 연속 상위권 수상의 영예 대숲 맑은 브랜드 가치 향상!

담양군 대표 브랜드인 금성농협의 '대숲맑은 담양 쌀'이 올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의 전문가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남농업기술원, 전라남도가 함께 평가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식미, 품위, 품종 혼입률, 중금속 오염도, 잔류 농약검사 및 가공, 저장에 대한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다.

담양군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위생농업과 품질고급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농업의 기본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 단지 조성고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한 생산,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해왔다.

유통에서는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15일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하는 소비자 리플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한 시책을 펼쳤다.

이렇듯 지역농업인, 금성농협, 담양군이 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숲맑은 담양쌀'이 도내 간척지 쌀의 특권이었던 전남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에 10년 연속 상위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대숲맑은 담양 쌀'은 3천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전라남도와의 연계한 대형유통업체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 농산물



담양/김용학 기자

# 노동력 부족 심화...화순군, 농촌 일손 돕기 나서

화순군(군수 구중곤)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기간'을 정하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인력의 지역 간 이동 제한과 외국인력 수급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농촌 일손 돕기 기간'으로 정하고 영농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20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직원 32명은 화순읍 수만리에 있는 복숭아 농장을 찾아 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왔다. 과수 재배에 봉지 씌우기 작업은 병해충 예방과 과실 착색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복숭아 재배 농가는 "80세의 나이에 복숭아를 9000㎡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농번기와 코로나 상황이 겹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봉지 씌우기를 포기



화순/이윤성 기자

# 전주시, 과수 피해 입히는 해충 방제작업 지원

전주시가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파방 등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제, 복숭아, 포도, 감 등 4개 작목의 317개 농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돌발해충은 나뭇가지에 붙어 수액을 빨아 먹어 가지가 말라죽게 하거나 분비물을 배출해 열매나 잎에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등 농작물의 피해를 입힌다.

시는 과수농가에 친환경 방제 약제와 교미교란제, 유인트랩, 해충 포

획기 등 공급했다. 특히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에서 부화해 인근 농경지로 이동하는 5월 중순부터 애벌레들이 모여 생활하는 6월 초순까지 초기 방제작업을 집중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농가대표와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확기에는 농약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 순천시, 8천개 다중이용시설 상생 지원금 지원

## 1개소 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역 경기 침체 송풍 터워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업소)에 전액 시비로 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고 21일(목) 밝혔다.

오는 25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상생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위기와 생계절벽에 다가가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소)사업주들의 송풍을 터워주는 것을 목표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21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소) 대표자로서, '2020년 3월 22일까지 순천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업소)' 또는 '2020년 2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시설(업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학원,

속박업, 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약 8천여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밤낮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다중이용시설(업소) 대표자들이 복잡한 서류발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수 가능하다. 대표자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소)의 경영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이번 상생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순천시는 택시·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4,600여 명에게 50만원씩 총 21억여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순천/최종식 대기자

# 화순군, 관내 택시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 지원

## 택시 종사자 137명 대상으로 화순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

화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도비와 군비 685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등 5개 농협 지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일반택시 회사 8개소의 종사자, 개인택시 종사자 등 137명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

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로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30만 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이 승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각각지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윤성 기자

# 장흥군 CCTV관제요원 점유이탈횡령범 검거

## 장흥경찰서장, 관제요원에 표창장 수여 범인 직감 경찰서 신고 검거하는 성과

장흥군 CCTV통합센터 관제요원 김 모 씨가 점유이탈 횡령범의 를 받고 있는 범인을 퇴근길에,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인규 장흥경찰서장은 발빠른 대처로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요원에게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13일에 장흥군 CCTV통합 관제센터는 점유이탈 횡령범 관련 수사협조요청을 받았다.

인상착의를 전해 들은 관제요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도중에, 범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관제요원은 근무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근무 시간에 집중 모니터링을 했던 인상착의의 범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은 바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관제요원은 "근무시간에 집중모니터링을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장흥/김종현 기자

# 영암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본격화한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영암읍 도시가스 도입 여건, 도시가스 사업 개요,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경제성)검토, 기대효과 등이었다.

군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건의해 왔으나, 1차제 1수급지점 원칙 및 경제성 논리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아닌 삼호읍(세한대학교 앞)에 기 매설된 목포도시가스(주)의 배관을 연장하여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완료하였다.

용역 결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약 127억 원 정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암읍의 도시가스 예상 수요는 주택, 일반, 산업용 등을 포함하여 2,800여 세대로 도시가스 사용 시 기존 연료 대비 48%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은 세한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삼호읍에서 독천터미널, 학산면사무소를 경유하여 학산초등학교, 김양장군 유적지, 동구리리, 군서면사무소를 지나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



영암/노경태 기자

# 장성군, 전년 대비 방문객 10.8% 증가했다

## KT와 공동연구 통한 빅데이터 분석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성 입증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렸던 작년 10월과 축제 종료 후인 11월에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져,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이 KT와 함께 추진한 '장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렸던 작년 10월과 축제 종료 후인 11월에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져,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장성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 노란꽃잔치가 열렸던 10월에 장성을 찾은 외부인은 106만 2733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축제 폐막 이후인 11월에도 주말 방문이 이어져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54.7%가 광주광역시 방문객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나주시와 담양군, 전북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비율이 높아 인접 지역 시·군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문객 가운데 40~50대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당일 방문이 87%로 다수를 차지했다.

방문객의 소비패턴 역시 음식비 지출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 식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적합한 음식 콘텐츠 개발과 관련업소 교육, 체험형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과제 로 나타났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장성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백태지 기자

#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청사진 나와

## 이용편의 주변환경과 조화 효율적 배치로 계획

### 혁신도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 뒤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편의를 높이고 혁신도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뒤 조정기로 했다.

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책임지게 될 다목적체육센터를 진출입이 편리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신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다목적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했으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는 길 건축사무소의 응모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 동선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설계와 지반의 고저차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공간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당선작을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설명회와 다목적체육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내년 12월까지 덕진구 중동 852번지 부지에 국비 35억원 등 총 113억원을 투입해 지

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3900㎡(1179평) 규모로 조성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공간에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또 체력단련과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트램펄린 등이 가능한 체육공간과 다목적실도 구성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당선작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이용상의 편의성과 주변과의 조화성 등이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 화순군 “건축물 해체 신고해야”

화순군은 최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3개 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이윤상 기자

##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전격 연기’

###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로 연기 결정 인원을 위해 연기 ‘공연 일정 추후 공지’



지난 22일부터 공연 예정이었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다시 한 번 연기 소식을 전했다.

여수시는 22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과 ‘청춘버스킹’ 등 거리문화공연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발 감염자 확산과 초·중·고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잇단 확진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고, 정부의 축제·행사 연기 및 취소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기다리신 시민들과 관광객, 예술인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성민 기자

## 순천시,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 성과공유회 개최

### 시민이 참여 직접 나서서 순천부읍성 콘텐츠 만든다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 시민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을 위해 그동안 수렴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2021년 상반기에 예정된 개관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2월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52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발굴 시민단’은 순천부읍성이 위치한 원도심과 도시재생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다방면의 콘텐츠를 마련하는 역

할을 수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단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콘텐츠 발표와 순천부읍성의 역사성, 상징성을 담은 새로운 명칭을 고민하고 그동안의 활동 소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모아낸 시민단의 발굴 콘텐츠를 순천부읍성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효과 톡톡”



### 3월부터 발빠른 임대료 감면제 시행 이용률 30% 증가, 농민들 절대 호응

장성군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가 시행 2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영농기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영농철 인력 부족과 적기 영농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감면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장성군은 3월 1~21일분 농기계 임대료도 소급적용해 환급했다.

장성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1일 분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이튿날부터 감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참여도도 높다.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이후 지난 5월 15일까지 집계한 이용건수는 4259건으로,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3월부터 발빠르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을 겪는 지역농가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총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7종 76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건수는 2018년 9328건, 2019년 1만7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장성군은 작년까지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소로 평가받았다.

장성/박태지 기자

## 보성, 올 상반기 보성사랑상품권 289억 원 풀린다

보성군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행했던 보성사랑상품권 139억 원이 활발하게 유통되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6월 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지원 수당을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289억 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성군은 △전남형 긴급생활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분 등 정책 지원금 116억 원을 발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지급하는 중이다.

또한, 지역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분으로 발행해 판매했으며, 조기 품절돼 4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5월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군은 10% 특별 할인 판매할 상품권 25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성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 판매를 올해 7월 24일까지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특별 할인 기간에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시 할인율은 기존 5%에서 6%로 인상됐다.

보성/김정필 기자

## 영광군,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영광군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앞서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영세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비를 통한 자체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

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영광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물량이 급감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 구례군, 코로나19 공적 방역물품 배부했다

### 읍·면사무소 및 터미널에 마스크 비치 다중이용시설 비접촉식체온계 배부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사무소, 대중교통 등에 공적 방역물품을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접수를 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마스크 2천장을 비치하였다. 대중교통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에는 마스크 500개를 비치했다. 미처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방문자는 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 장의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지난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395개의 체온계를 확보하여 관내 경로당 27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18개소에 배부하는 등 공적 방역물품 배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며 활동과 접촉이 많아졌기에 방역물품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민들께서도 군의 대응에 협력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구례/김은철 기자

#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그룹



# 경주시, '안녕한 한끼 드림' 지원사업



## 독거노인·취약계층 결식 예방농협중앙회 후원 이번달 8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5일간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하고 이마

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협업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안녕한 한 끼! 도시락 지원' 사업을 이번달에 진행 하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경주 노인급식소, 불국사성립무료급식소,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경주노인 복지센터 등과 함께 이번달 8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5일간 총 2,490개의 도시락을 경주시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자원봉사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방역활동 지원, 면 마스크 만들기, 의료진 응급키트 만들기 등 민간 차원의 대응활동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엽 센터장은 "이번 '안녕한 한끼!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결식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영천시 간부공무원 기부행렬 동참



경북 영천시 간부공무원들은 22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나섰다.

최기문 영천시장, 김호섭 부시장을 비롯해 기부를 희망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1명은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며, 6급 이하 직원들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려운 때일 수록 연대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기부와 착한소비의 실천이 또 한번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 용인시, 예스병원과 취약계층 무상 의료서비스 협약

홀로어르신 영양주사 수술 지원  
저소득 청소년엔 장학금 전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동 예스병원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영양주사나 긴급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가 어려워 몸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예스병원은 6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에게 영양주사를 놓거나 무릎, 허리, 목 등 긴급한 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을 추천받아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구는 의료서비스와 후원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해 연계해준다.

용인/유기영 기자

## 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조례 공포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경기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화성/김영범 기자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행렬!

경주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영주시전기공사협회(회장 신영길)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장학회를 방문한 신영길 영주시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영주의 미래인 우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에 장학회에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전기공사협회는 영주지역 23개 전기공사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

한편, 영주시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해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7백만 원에 이른다.

영주/정승초 기자



장욱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영주시전기공사협회에서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미래의 영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값지게 쓰이게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영천시·영천경찰서 협업 야광 지팡이 1,500개 전달

경북 영천시는 최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공동 홍보를 위해 영천경찰서(서장 최준영) 김중호 경비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용품인 야광 반사지팡이 1,500개가 600개를 영천경찰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야광 반사지팡이 1,500개는 보행용 지팡이에 반사테이프를 크게 붙여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안전용품인 야광 반사지팡이 배부도 도로주행 농기계를 비롯한 보행 중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홍보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영천/한반식 기자

교육 시 900개, 영천경찰서에서는 복지관 및 노인정 이용 관내 어르신들에게 6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그 밖에 본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교재 제작 및 배부(1,000부),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또는 트랙터) 안전장치인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230여 개 부착 지원 등이 하반기에 추진 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 농기계 사상자가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등 사고 대상이 대다수 노인인 경우가 많아, 본 사업을 계기로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배부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주)파트에이, 여수시에 후원금 1,000만원 기탁

(주)파트에이(대표 김인순)는 최근 전남 여수시청 시장실을 찾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후원증서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후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순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여수의 이미지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서도 방역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우리 시의 꾸준한 방역활동과 위생관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도 큰 역

여수/김성민 기자



할을 했다"고 밝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금을 기탁해 주신 (주)파트에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파트에이는 여수시 신기동 메가박스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42세대 규모의 '여수 신기 휴스티지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 영암군, 임산부들에「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전남 영암군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되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산모나 임산부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임신 확인서, 출생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하며 월 2회(6만원~12만원) 이용할 수 있다.

영광/노경태 기자



주문은 신청 시 가입한 인터넷 농협몰을 통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꾸러미 농산물이 공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기농 1번지 우리 영암 친환경 농가의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임산부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최형식 담양군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가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군수의 이번 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남 21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기로 한데 이는 두 번째 결정이다.

최 군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과 함께 서로 이치를 돌보고 나누며 동행하는 연대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며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기부 실천 생활화를 통한 공동체 강화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



하는 지역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보편화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시흥시, 유·초·중·고 학생·모바일 쿠폰 지원

경기 시흥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재료 생산자,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흥시가 함께 마련했다.

학교급식경비 미집행 예산을 학생들에게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지원해 식재료 생산자인 농가와 공급업체의 활로를 찾는 뿐 아니라, 선별된 식재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

시흥/김대성 기자

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6만2,000여명이 대상이며, 학생 1인당 농협몰 모바일상품권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게 된다.

농협몰 이용 식재료 구매 모바일 쿠폰은 내달 1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학생들 가정과 급식 공급업체 모두에게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시흥시에서 나는 햇토마를 비롯해 최상급의 농산·축산물을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용인시, 각계각층서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기탁

경기 용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웃을 돕는 각계각층의 성금·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용인시체육회를 비롯한 용인시장에인체육회, 용인시체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실시일만 모은 성금 445만원을 기탁했다.

이특수 체육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웃들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어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기흥구 구성동 시립구성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성금 126만원을, 수지구 죽전동 올덴아울렛 용인성남점이 141만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55포를 기탁했다.

최영민 올덴아울렛 용인성남점장은 "개장 선물로 받은 백미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기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아트뮤지엄 러” 공립미술관으로서의 행보 첫 시동!

여주시 미술관「아트뮤지엄 러」상반기 기획전

‘아빠, 미술관 가자!’-미술과 과학, 그리고 형식 융합

전시기간 : 2020. 5. 22.(금) ~ 2020. 6. 21.(일)  
 전시장소 : 여주시 미술관「아트뮤지엄 러」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연라동 758번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퍼블리카펙  
 장 르 : 회화, 조각, 미디어 등 융합  
 성격의 현대미술작품  
 참여작가 : 김진우, 김지아나, 류호열,  
 엄익훈, 이길우 이상 5명  
 전시작가 및 작품 수 : 5명 작가 40점 내외  
 전시내용 : IT기술을 융합한 키네틱아트,  
 미디어아트, 조명을 융합한 현대도자,  
 형식적 변화의 회화 작품 등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작품 전시

의 작가들이 회화, 미디어, 조각, 현대공예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의 생활 속의 고민과 미래적 통찰의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서로 다른 장르와 분야가 만나고 새로운 형식의 융합을 통하여 창작된 작품들이다. 미술과 IT를 접목한 제작방식과 융섭(融攝) 기법을 시도해 제작된 작품들이다.

내용면에서는 일상적 주제부터 현대사회의 문화적 경향과 인문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술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전시의 구성은 5명 작가의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조각과 움직인: Art Tech의 공간은 조각과 기계동력의 융합으로서 작가 김진우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리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존재하고 인간의 뇌보다 높은 지능의 기계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작가 상상력의 공간이다.

두 번째, 빛과 조각의 융합: 실체와 환영의 공간은 물질과 비물질, 실체와 허상 등 상대적 개념을 표현하는 엄익훈 작가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작은 유닛으로 구성 된 작품의 실체와 그 실체가 빛을 통해 드러나는 그림자는 실체와 다른 아이러니의 극적 반전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미디어와 회화, 조각의 융합 : 미디어와 키네틱아트의 공간은 조각, 미디어, 사진, 동역학(動力學) 구조의 장르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작가 류호열의 공간이다. 착시나 원근, 반복되는 주크박스와 연속플래이 되는 미디어 안의 사물들은 몽환적 느낌과 즐거움으로 관객을 참여시키고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네 번째, 회화 속의 회화: 이미지 중첩의 공간은 산과 들의 풍경, 인물들의 모습을 향불을 이용하여 태우고 다른 이미지를 결합시켜 ‘소멸과 생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 이길우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동서양의 이미지,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 자연과 인공물의 이미지들이 겹쳐서 이중, 삼중의 임지를 한 화면에 담아낸다. 작가는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삶에 대한 감정을 전하고자한다.

다섯 번째, 회화와 도자의 융합 : 도자회화의 공간은 도자회화라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지아나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구 구성의 근본 질료인 ‘흙’을 선택했다. 작가는 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때론 계산적이고 우연적인 과정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나’와 ‘사회’의 관계성, 시간이 만들어 내는 역사성에 대해 흙과 색, 그리고 기법적 융합의 시도를 통해 얻어진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공간 속 다양하게 보여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 속의 예술적 사고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현대미술과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여주/유기영 기자

## 담양군, 여행자 도시 ‘담빛길 미디어투어’



### ‘담빛길 미디어투어’ 2차 시범운영 정보통신(IT) 최첨단 기술의 융합

전남 담양군은 비대면 개별여행에 최적의 여행파트너인 ‘담빛길 미디어투어’를 오는 6월 15일까지 2차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철저한 감염방지 매뉴얼을 준수해 비대면 개별관광이 특징인 ‘미디어투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

미디어 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8권역 ‘남도 맛기행’의 하나로 광주, 목포, 나주, 담양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 관광지의 역사·인문자원과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담양은 원도심인 담양읍 담빛길 구간을 2개 코스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 스토리와 수려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시청하며 여유로

운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미디어 투어 체험자는 운영거점에서 골전도 이어폰과 태블릿 PC를 지급받고 안내받은 코스를 영상과 함께 투어하게 되는데 6월 15일까지(매주 월, 화 제외)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mediatour.kr)에서 사전예약 및 여행지 코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투어 거점(담양 메뚜기 카페 061-383-5539)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디어 투어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몰입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작가, 영상 제작자, 문화기획자가 스토리를 발굴해 제작한 영상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프로그램이다”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디어투어가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경남도립미술관, 26일부터 무료관람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도민 위해 무료관람 서비스, 홈페이지 현장접수자에 한해 관람 가능

경남도립미술관(관장 김종원)이 26일부터 <새로운 시(詩)의 시대>와 <자화상(自畫像) ii - 나를 보다> 전시를 무료관람 서비스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립미술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제한적 관람으로 전환하고, 홈페이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1시간당 30명만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

무료 관람을 원하는 도민은 미술관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gam)를 통해 사전예약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미술관을 방문하면 된다. 미리 예약하지 못했다면 사전예약자 미달 회차에 한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미술관에 문의(055-254-4600) 후 방문



하는 것이 좋다.

김종원 관장은 “장기휴관(2월 26일~5월 11일)과 제한적 관람으로 높아진 미술관 문턱을 낮추겠다”, “무료관람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예술 향유 기회를 누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시(詩)의 시대>는 6월 14일, <자화상(自畫像) ii - 나를 보다>는 9월 16일까지 운영되며, 무료관람 서비스는 7월 1일까지 진행된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광명, 장애인 위한 유튜브채널 개설

경기 광명시장에인체육회(회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하여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집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영상을 제공한다

영상 제작에는 광명시장에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자신들의 전공 종목을 중심으로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근력 운동, 홈트레이닝,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광명시장에인체육회를 검색하면 볼 수 있으며, 12일 홈트레이닝, 14일 레크레이션 등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2주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강혁 광명시장에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제작으로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광명시장에인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정채두 기자

도심속자연안식처  
**작은쉼터 캠핑장**

**<주요시설>**

풀장&카라반 내부

매점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연속에서 잠시 쉬어갈수있는 작은쉼터야영장이안식처가되어줄것입니다

NAVER 작은쉼터야영장

경기도 시흥시 죽울로 25(죽울동)  
 031-431-6660

http://wunion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19년 10월 15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가50138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문기주  
경제 칼럼-17회



▲문기주 회장

● 불과 30년의 짧은 역사 '지방분권'

분권(分權)이란 한자로는 나눌 분(分), 권세 권(權)으로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며,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방자치 역사는 불과 30년의 짧은 역사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실시되고, 1995년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어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복원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초석이 되는 '지역분권'의 현실과 위상은 어떠한지? 이제 중간평가를 받을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환경, 복지 문제를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갈수록 커지는 지방재정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외에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지방정부 살림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지방분권'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정부는 수도권 69곳 가운데 27.5%(19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은 전체 174곳 가운데 72.4%(126곳)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봐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18년 53.4%, 2019년 51.4%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방세 등 세입 비중이 줄어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의 척도인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財政自主度)는 2003년 84.9%에서 2018년 75.3%로 15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어 들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을 합한 것을 지방정부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을 말한다.

●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위상과 현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중점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현실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다.

▼ '자치사무 분야'에서는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자치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비용이 훨씬 많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 '자치입법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 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등을 둘 수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율권이 없다.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발의제(조례제정·개정·폐지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최초발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법률 제7060호로 2004년 1월 16일 최초 발효되었다.

이로부터 한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하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이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은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11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자동폐기(투표불성립)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좌초와

맞물려, 2018년 5월 21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식 발효되었다.

법률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마지막 입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 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지역 간 창의적 혁신경쟁의 필수요소이다.

과부화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와 재배분하여, 중앙정부는 전국적 과제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과제를 담당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이다.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다. 자치분권의 선명한 청사진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에 초점 맞춰진다.

이에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인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설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제도여야 한다

한국의 K방역은 각 국가에서 방역 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전국적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의료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초기방역 실패로 인하여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이 유럽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천 명당 중환자 병상을 따져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결국 미국·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유럽과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비하여 방역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찾아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립해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법 불신 요인될 수 있는 한명숙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는 감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제와 오늘도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동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신건영 대 표였던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은 한씨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을 한 전 총리 협의가 조작됐다는 근거로 든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비망록은 이미 1~3집에 증거로 제출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한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막연한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건 법치 파괴 행위다. 역을 하면 한 전 총리 본인이 증거를 갖춰 정식으로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치면 사법 불신의 큰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처럼 처신한 것도 불쌍사냥이다. 오히려 국민의 권은희 의원이 "의혹 제기엔 맞서지 않고 맞장구를 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잖나. 법조계에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비망록을 제출한 만큼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여러 정황들은 한 전 총리가 유죄임을 가리킨다. 한씨의 돈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고, "돈가방은 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는 한씨 측 경리 직원의 일관된 진술도 포함.

'진노 대모'로 꼽히는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라고 한다. 한 전 총리 구명운동 배경에 부당한 수사와 재판 피해자라는 걸 부각시켜 특별사면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177석이라는 숫자의 힘만 믿고 뇌물 사범을 무리하게 양심수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장을 편안하게, 피부를 매끈하게!'

'맑은 해풍은 밥맛을 결정해요!'

'첨유질과 당도가 뛰어나요!'

'저염도에 유산균이 많아요!'



해풍의 따스함과 자연의 신선함, 청정바다의 기운까지 담아

오염되지 않은 강화 그대로의 맛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맛을 즐기세요.

꼭 만나보고 싶은 강화의 맛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강화도농특산물은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 봉화군수 임태항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 조사한 인구소멸 위험지수 분석에서 봉화군이 2050년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는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으며, 군위·의성·청송·영양·청동·봉화·영덕 등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에 포함됐다.

따라서, 봉화군은 20150년 전국 인구소멸고위험 지자체 16개소 중 한곳에 포함됨에 따라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지역소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화군은 60년대 말 한때 12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많은 인구가 거주했으나, 산업화와 탈 농촌화 현상으로 2020년 3월말 현재 31,951명(16,727세대)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그마저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봉화군은 인구 늘리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풍요로운 삶과 주택의 질적인 추구에 대한 열망으로 전원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활력증진과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개발은 소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부대, 복리시설의 미비로 개별주택이 갖는 주거의 편리성에 비해 단지 내 생활환경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매년 수백 명이 귀농귀촌을 찾고 있지만 해당 지

자체들이 거주 가능한 주택부족과 초기 소득부재로 인한 역귀농 그리고 교통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의 미비와 상하수도 등의 문제와 법적 절차와 자본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모범적인 전원주택단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이러한 기존 전원주택단지들의 단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민선7기 임태항 봉화군수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정해 100개 마을 5,000호를 목표로 마을별 힐링, 경치, 소득, 문화재 등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귀농·귀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이 획일화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고 또한 기존의 단순한 주거편의만을 고려한 전원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지원하고, 감소세에 있는 봉화의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본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의 40개소의 전원마을 가능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변 환경과 법적가능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여 개소를 선정했다.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1차로 몰아면 북지리와 춘양면 소로리에 각각 80세대와 60세대 등 총140세대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차로 읍 소재지 각종 편의시설을 선호하는 귀농인 들을 위한 도심형으로 봉화읍 삼계리에 100세대, 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 근로자들을 위한 실거주형 전원주택을 춘양면 도심리에 60세대를 2024년까지 조성하고자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다.

아울러, 기존 석포면에 추진 중인 38세대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하면 5개 지역에 총340세대의 대규모 전원단지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 인구소멸·고위험지역 경북 봉화군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로 돌파구 찾는다!  
23개 시군 중 구미·경산·칠곡·포항 등 4개 시군 제외 소멸위험지역 포함  
60년대 말 12만 명 육박, 산업화와 탈 농촌화에 현재 31,951명으로 줄어



▲ 임태항 봉화군수가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감도를 보며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봉화군에서 추진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특징은 봉화와 춘양면 문화와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거점생활권 중심지 주변에 집중조성해 전원생활의 단점인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역에 산재한 군유지를 적극 활용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분양가가 저렴해 투자 가치가 높고 군유지를 저가에 장기임대도 가능토록 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봉화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아울러, 임주민들이 청정봉화의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동시에 소규모 농장 부지제공, 버섯재배사 부지 장기임대 및 버섯종균 저가공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등 도시민들이 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득연계 시책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은 크나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생활을 돕기 위해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영농복합형 및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분양형 및 계획임지형 태양광발전사업 등 다양한 녹색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봉화에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원생활도 즐기고 안정적인 노후도 보장받는 1석 2조의 혜택도 덩어리 얻을 수 있는 것이 봉화전원마을의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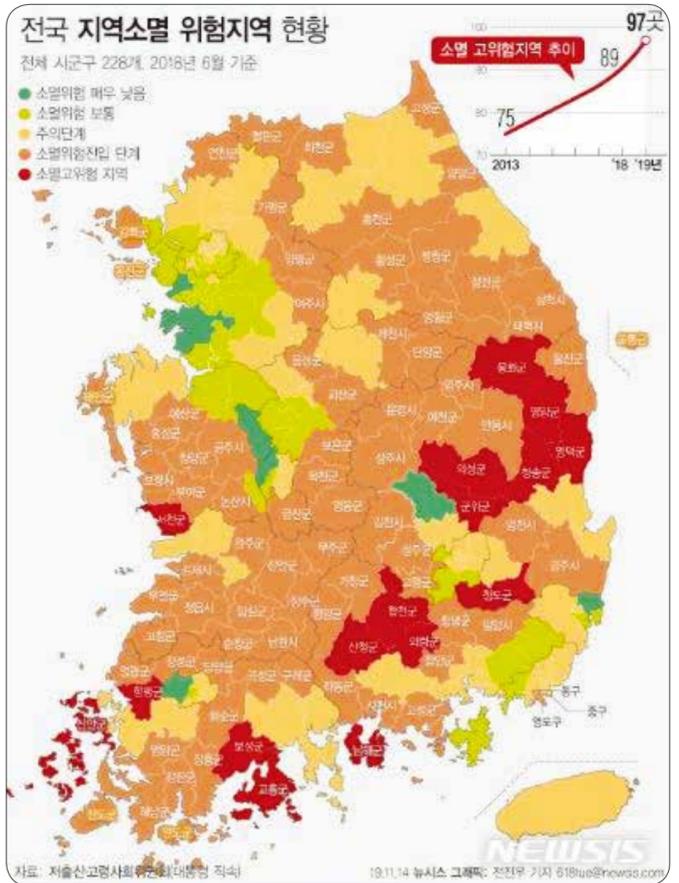
특히, 임태항 봉화군수는 4선 민선자치단체장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선7기 단체장 취임 직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던 농촌개발과를 본청으로 이전시켜 전원농촌개발과로 과 명칭을 변경했으며, 전원주택단지를 전담하는 전원주택팀, 전원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전원주택단지 관련 업무지원은 물론 각종 귀농교육과 귀농정착자금 지원책 등과 바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갖추어 귀농·귀촌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봉화군은 현재 5개소의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해 지역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테마의 맞춤형 전원주택단지도 추가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전원생활지 봉화군!』기반조성과 나아가 대한민국 전원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봉화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원주택생활의 메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항 봉화군수는 "희망과 꿈이 사라져 가던 봉화군이 도시민 유치로 인구가 늘고 지역이 발전해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찬 녹색도시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봉화/정승호 기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19.11.14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518us@news1.com

SAMSUNG



## 삼성 제트와 함께라면 우리집은 언제나 깨끗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필터시스템으로  
흡입한 미세먼지는 99.999% 배출차단하고

청소 후, 먼지통은 청정스테이션에서  
미세먼지 날림 걱정없이 비워주니까

삼성제트



청정스테이션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